



주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50-311 전화: 02-555-1946 / 010-5235-1946 메일: snuarta@naver.com 밴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1 본회소식



첫 학생회장학금 수여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8월 24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도 2학기 (재)관악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본회 권영걸 회장을 대신해 김홍규(83공예) 상임부회장이 김민주(20공예), 박수민(21디자인), 손수연(21조소), 윤솔하(22동양), 황재희(22서양) 학생 등 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특히 이번 장학금은 성적 또는 소득을 고려해 지급해온 이전과 달리, 바쁜 수업일정 속에서도 학생회를 위해 봉사하는 학생회 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보답하는 의미로 각 과 회장들에게 수여했다. 본회는 최초로 시행하는 학생회 장학금이 앞으로 모교 학생회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장학금을 수여받은 수상자 중 손수연 학생은 "이전 학생회장단에는 장학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서 당연히 저 또한 없는 줄 알았는데 운이 좋게도 임기 중간에 장학금을 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 회장은 기본적으로도 과를 위해 봉사하며 여

러 가지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였는데 거기다 장학금도 준다니 정말 감개무량한 자리가 되었네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주 학생은 "본교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공예과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더욱 학업에 정진하며 노력하겠습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박수민 학생은 "동창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 더욱 학문에 열중해 좋은 디자이너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디자이너로 성장하겠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회는 매년 2회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유튜브 공식채널 개설



지난 8월 1일 본회는 유튜브 공식 채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동창회 SNU Art Alumni'를 개설하고, 첫 번째 영상으로 지난 7월에 열린 본회 제24대 집행부 임원상견례 현장스케치를 올렸다. 본회는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본회 행사를 영상으로 전할 예정이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를 검색하거나 QR코드(▲사진)를 스캔하면 채널을 방문할 수 있다.

본회소식



S-ART BOOTH SHOW 개최

본회는 지난 8월 30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기획전실에서 '2023 S-ART BOOTH SHOW'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부스전으로 김소선, 나성숙, 신경훈, 채혜선, 홍미엽, 황현숙 동문 등 6명의 개인전과 특별전으로 김명은, 김민영, 김정아, 박도현 동문 등 4인전 '포착된 풍경'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전시는 본회 24대 집행부 출범을 맞아 후원금을 낸 동문들 초대전으로, 이와 같이 본회는 앞으로도 후원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대총동창회 캘린더 수록작품 선정



본회는 2024년도 서울대총동창회 탁상용캘린더에 수록할 작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품은 표지포함 총 13점으로 곽순화, 박덕실, 박소영, 박혜령, 변영혜, 선우향, 이부연, 이지희, 이해민, 채혜선, 최범용, 한석란, 허진 동문의 작품이다. 이번 수록작품은 총동창회 활동에 기여하고자 예년과 달리 재능기부로 결정, 임원(부회장 및 이사)을 대상으로 공모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8월 15일까지 공모한 결과 13명의 작품을 최종 선정하였다. 그동안은 본회 아카이브에 수록된 회원작품을 대상으로 공모가 아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해왔다. 탁상용캘린더는 오는 11월 서울대 전 동문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사진=2023년도 캘린더)

'서울대미술인 1946-2023' 사전구매신청



본회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자료조사를 토대로 '서울대미술인 1946-2023'을 발간할 예정이다. 도록은 소장가치를 높이고자 한정판으로 제작하며 사전구매 신청을 받는다. 도록에는 시각예술분야는 물론, 운영사업체나 프로젝트, 영화, 공연, 저서 등 46학번 원로동문부터 2023년도 신입동문까지 3000여명의 미대 동문의 실적이 수록된다. 본 도록은 대외적으로는 서울대 미대 졸업생들의 활약상, 대내적으로는 선후배간의 인지도 향상, 나아가 미대 졸업 후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전무후무한 자료집이 될 것이다. 도록은 페이지 당 9명의 이미지 및 경력 이 수록되어 총 350p에 달하며 표지는 양장, 내지는 랑데뷰지, 규격은 290x225mm이다. 사전신청은 부수 제한이 없다. 단, 올해 연회비 납부회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문의: 02-555-1946)

사전회원구매가: 5만원(정가 15만원)

사전구매신청: 문자(010-5235-1946)로 신청(부수 및 성명, 학번, 학과 명시)

분당서울대병원전 '힐링인아트' 개최

본회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병원내 갤러리 SPACE-U에서 '힐링인아트'를 개최한다. 본회는 이번 전시에 참여할 작가의 선정을 최초로 공모를 통해 진행했으며, 그 결과 소미정(10동양), 송인옥(82회화), 이승은(14동양) 동문 등 3인이 선정되었다. 3인의 작가는 환우들과 편안한 정서를 나누고자 하는 전시취지에 맞추어 따뜻한 위로가 되는 작품들

지아트갤러리 첫 초대전



본회와 MOU를 맺은 지아트 갤러리(대표 배기열)가 첫 전시로 황시연(17서양) 동문의 초대전을 지난 8월 9일부터 15일까지 개최했다. '불량한 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 회화작품 18점을 선보인 황동문은 "일상을 이루는 현대도시와 디지털 화면들 속의 상업이미지들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색으로 뒤덮여, 우리들의 눈을 현혹한다. 즉발적인 감각반응을 유도하는 풍경들은 상당히 불량적이지만, 그렇기에 중독적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배기열(92동양) 대표는 지아트 주최 세계 팝아트 8대거장전의 청년부문에 황동문을 초대하기로 했으며, 분기별(연 4회)로 동문초대전을 약속했다. 또한 본회 부회장이기도 한 배동문은 약정된 초대전 외에도 본회의 발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SNU빌라다르전을 비롯한 단체전을 통해 작품활동을 해 온 황동문은 현재 에스아트플랫폼 학예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본회와 MOU를 맺은 지아트 갤러리(대표 배기열)가 첫 전시로 황시연(17서양) 동문의 초대전을 지난 8월 9일부터 15일까지 개최했다. '불량한 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 회화작품 18점을 선보인 황동문은 "일상을 이루는 현대도시와 디지털 화면들 속의 상업이미지들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색으로 뒤덮여, 우리들의 눈을 현혹한다. 즉발적인 감각반응을 유도하는 풍경들은 상당히 불량적이지만, 그렇기에 중독적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배기열(92동양) 대표는 지아트 주최 세계 팝아트 8대거장전의 청년부문에 황동문을 초대하기로 했으며, 분기별(연 4회)로 동문초대전을 약속했다. 또한 본회 부회장이기도 한 배동문은 약정된 초대전 외에도 본회의 발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SNU빌라다르전을 비롯한 단체전을 통해 작품활동을 해 온 황동문은 현재 에스아트플랫폼 학예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장흥물축제 회장상 시상



본회가 협찬한 제16회 장흥물축제 '미술과 생태학의 만남전' 기간 중 개최된 드로잉대회에 서울대미대동창회장상을 시상했다. 본회 회장상인 최우수상은 창평고등학교 3학년 장인아 학생이 받았다. 본회가 지역 문화축제에 협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흥물축제 본 행사인 미술과 생태학의 만남전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장흥문화예술회관과 탐진강 일대에서 열렸으며 여러 동문들이 장흥의 문화르네상스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다.(사진=회장상 수상작)

그림 속 풍경을 찾아서, 강원도 미술여행



본회는 첫 미술여행으로 오는 9월 '그림 속 풍경을 찾아서-강원도미술여행'을 개최한다. 이번 여행의 테마는 단원 김홍도, 겸재 정선 등의 그림 속 실풍경을 찾아가는 것으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속초 일원을 탐방할 예정이다. 1일 차에는 서울을 출발하여 진부령미술관, 고성통일전망대, 능파대와 청간정을 거쳐 속초에 머무르며, 2일 차에는 신흥사와 낙산사의상대와 흥련암을 둘러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본회는 여행 후 참여한 동문들이 여행에서 받은 영감을 나누는 전시회 '이시동시(異時同視/가칭)'를 개최할 예정이다.(사진=김홍도필금강사군첩과 능파대)

서울대동문전 '숨은예술가들' 개최



본회가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과 함께 오는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개최하는 서울대동문전 '숨은예술가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전시의 참여 작가는 서울대 동문들로, 전시 경험이 많지 않거나 전문적인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내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열정과 진심을 가진 서울대 동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서울대 동문 중 선정된 이들은 내년 외에서 정식 개최될 '2024 숨은예술가들' 전시에 초대될 예정이며, 역량이 뛰어난 동문의 경우 본회 명예회원으로 영입해 함께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교소식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모교(학장 정의철) 제77회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29일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체육관(71동)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식전공연으로 30분 동안 서울대음대 악단의 'SNU Wind Ensemble' 연주가 있었다. 학위수여식 현장은 서울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동양화과 6명, 서양화과 13명, 조소과 8명, 공예과 9명, 디자인과 23명, 미술경영 2명 등 총 61명이 명예로운 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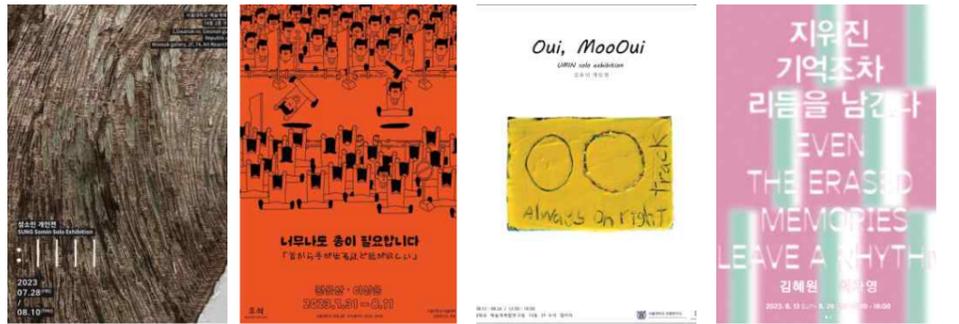
송광자도서관 소개



모교는 2015년 예술복합연구동(74동)이 준공되자 모교 52동에 위치했던 도서자료실을 예술복합연구동으로 이전하면서 도서관으로 재조성했다. 이때 도서관 구성에 도움을 준 송광자(62응미) 동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송동문의 이름을 딴 송광자도서관이 탄생했다. 송광자도서관에는 조형예술분야 논문 및 단행본 자료 등 약 15000권이 있으며 열람공간과 세미나 공간을 갖추고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과 정보화본부와 연계한 웹기반의 교육학술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교 교수 및 연구자와 재학생 등의 교육, 연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월-금(주말

및 공휴일 제외) 9:00-18:00 이용 가능하며,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별도의 절차나 제한은 없다. 단, 도서 대출은 교내 대출 프로그램 사용으로 중도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에서 대출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석갤러리 소식



성소민개인전 이상윤, 권은산전 김유민개인전 김혜원, 최가영전

7-8월 전시

우석갤러리에서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1달간 총 4회의 전시가 열렸다. 성소민(15동양) 동문의 개인전 ' : || || '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열렸고 이상윤(석사19조소), 권은산(석사21조소) 동문의 2인전 '너무나도 총이 필요합니다'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렸다. 김혜원 작가와 최가영(08동양) 동문의 2인전 '지우진 기억조차 리듬을 남긴다'와 김유민(석사18조소) 동문의 개인전 'Oui, MooOui'이 그 뒤를 이어 지난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열렸다.

초청큐레이터기획전 참여작가 공모

우석갤러리는 '2023 우석갤러리 초청큐레이터 기획전' 참여작가를 공모했다. 초청큐레이터 기획전은 미술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큐레이터를 초청하여 모교 구성원과 함께 기획하는 전시이다. 이번 기획전에는 유지원 리움미술관 큐레이터가 초청되었다. 참여작가 공모는 1차 서류심사, 2차 개별 인터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된 작가는 전시 참여의 기회와 함께 현장의 전문가로부터 자신의 작업에 대한 개별 크리틱을 받아 볼 수 있다. 접수기간은 지난 8월 8일부터 14일까지였으며 모교 대학원 재학/수료/졸업생에게 응모자격이 주어졌다. 한편 우석갤러리는 대안적인 전시와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교 장발 초대학장의 호 우석(雨石)을 이름으로 정하여 2006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로 해마다 30여회의 전시를 열고 있으며 대부분이 모교 재학생 및 졸업생, 구성원의 공모를 선정한 전시이다.

My Own Ring

서울대미대동창회 산하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운영하는 에스아트몰에서 'ACCESSORY' 카테고리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조금씩 다르게 제작되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반지를 소장해보세요.



서울대 동문 특별할인 제공

총동창회몰 'Mall SNUA' 입점(브랜드관 S-ARTMALL)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신청 및 작품등록에 대한 문의
02-877-8065 / sartmall.contact@gmail.com





sartmall.com

서울대소식



서울대-대한적십자사 사회공헌 협약식

유홍림 총장은 지난 7월 28일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회공헌 협약은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서울대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및 대학적십자회(RCY) 활동 활성화, 인도주의 및 리더십 교육 추진, 기부문화 확산 및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유홍림 총장은 “기후 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과 복합적 위기의 시대 상황은 인류의 상생과 협력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서울대학교가 적십자사의 여러 사회공헌 활동에 힘을 보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단융합학부 신설



서울대는 지난 4월 2024학년부터 정원 218명 규모의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헬스케어, 융합데이터과학, 지속가능기술, 차세대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등 5개 신생전공을 포함한 학부다. 첨단융합학부 설립의 배경엔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이 있다. 반도체 인력 부족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따라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정원 유지·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첨단분야에 한해서는 학과의 규모를 키우게 된 것이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첨단분야 증원과 학과 신설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3월 말에 첨단융합학부 신설을 교육부에 제안했고 4월에 학부 신설이 승인되었으며 지난 8월 1일에는 관악캠퍼스 기초교육원에서 첨단융합학부 학내 공청회를 가졌다. 한편, 첨단융합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 후 3학기 동안 교양과 학부 공통 교과목을 들으며 5개 분야의 전공을 탐색한 다음, 4학기부터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생성 AI와 함께 뮤직비디오 만들기 프로그램



지난 8월 3일 기초교육원에서 진행된 ‘생성 AI와 함께 뮤직비디오 만들기’ 프로그램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 계발 및 함양을 도모하고자 기초교육원이 개최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2개 이상의 단과대 소속 학생들로 구성된 4, 5인이 한 팀을 구성하여 총 10개 팀이 선정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음악대학 최우정 교수(작곡과), 이지수 조교수(음악학과), 부다혜 강사(작곡과)가 영상과 음악 창작 AI프로그램 및 창작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각 팀별로 튜터링을 제공했다. 지난 7월 25일에 결과 발표회가 열렸으며, 팀별로 뮤직비디오 시연과 함께 작품을 설명했다. 이날 10개의 작품이 발표되었고 그

중 갈비찜의 전설(오이채배송: 사범대학 배윤진, 오주희, 이채린, 이채은, 자유전공학부 송정안)이 대상을 차지했다. 뮤직비디오 결과물은 기초교육원 유튜브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양성보고서 발간



서울대 다양성위원회(위원장 전창후)가 서울대 구성원의 다양성 현황이 담긴 ‘서울대학교 다양성보고서 2022’를 지난 7월에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임교원 총 2299명 중 여성은 454명으로 2012년 13.0%에서 최근 19.7%까지 점진적으로 비율이 높아졌다. 2022년 서울대 전체 여성 재학생은 36%, 간호대 남성 재학생은 23%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2022년엔 서울대에 등록된 장애 학생의 수가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장애 학생 수의 증가가 서울대가 최근 장애 학생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온라인상에서 장애학생 등록과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LnL기숙사 운영 반년, 현황과 구상



올해 초 도입된 LnL이 1년의 시범 운영 중 절반을 마쳤다. 입주생들은 기숙사(관악학생생활관) 906동에 거주하며 LnL의 뜻 ‘Living and Learning’ 그대로 생활과 교육이 통합된 시간을 보냈다. 기숙형 대학을 통한 전인교육과 공동체 교육은 서울대학교의 숙원사업이었다. 신입생의 10% 규모로 시작했지만 큰 관심을 모아 올 초 신입생 입주자 지원에서 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LnL 입주생은 신입생 248명, 2학년 이상 학생 26명과 대학원생 13명이다. 처음엔 체계가 잡히지 않아 조교들이 고생했지만, 입주생들은 몇 달간 설문조사와 토론을 거듭하며 의견을 모아 치열한 조율 끝에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정들을 탄생시켰다. 선제적으로 갈등을 예방하려는 접근 방식 대신 생활규칙을 입주생이 직접 정하고 예체능상담 등 비교과활동이 활발해서 신입생 외 학년도 입주 문의가 많다. 기숙사를 신청했다가, 졸업할 때까지 살고 싶어졌다는 학생도 적지 않다. 서울대는 2026년까지 기숙사 여러 동을 재건축해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LnL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학 동안 여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며, 요리와 베이킹을 할 수 있는 공유 주방도 곧 설치된다. 유홍림 총장은 “장기적으로 학부대학과 LnL의 결합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도서관 작은 전시회 ‘너를 위한 짧은 위무’



중앙도서관(관장 장덕진)은 지난 7월 24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서울대학교 순수미술 동아리 미동(美童)과 함께 중앙도서관 관정관 1층 관정 갤러리에서 ‘너를 위한 짧은 위무: 모르고 지나쳤던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빠르고 거친 삶의 흐름 속에서 외면당하기 쉬운 작은 가치들에 대한 재조명의 시간을 담았다. 일상의 소중한 순간을 담은 미술작품 14점이 전시되며, 전시 작품 모두 이번 전시 주제를 위해 새롭게 그린 그림들이다. 미술작품 외에도 전시에 참여한 학생들이 고른 『깊은 강』(민음사, 2007), 『이 시대의 아벨』(문학과지성사, 2019) 등 전시 관련 도서 5종이 전시된다. 전시 참여 학생들이 직접 쓴 서평을 통해 전시 도서와 미술 작품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 관람을 통해 ‘그렇다면, 지금 이 관람의 순간은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생각하고, 그 사유의 과정에 대한 관찰과 인식을 통해 일상의 작은 심을 경험하는 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중앙도서관은 밝혔다. 서울대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와 문화 콘텐츠가 함께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학교 지식기반 문화예술나눔」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전시는 본 사업의 일환인 ‘중앙도서관 작은 전시회’행사이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Mall SNUA 회원 8200명 돌파



서울대학교 동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이 취임과 동시에 착수, 작년 8월말 오픈한 Mall SNUA가 개설 1년 만에 가입 회원 수 8200명을 돌파했다. Mall SNUA는 서울대학교 동문만이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쇼핑몰로 삼성전자, LG전자, 삼익악기 등 국내 대표 IT 기업과 악기, 패션, 생활용품 기업까지 입점해 총 4000여 개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1년 만에 가입 회원 수와 취급 상품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데는 동문 기업 오너나 임원들의 후의의 영향이 크다. Mall SNUA에 입점하는 모든 상품은 입점 계약에 최저가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동문 기업을 대상으로 배너 및 팝업 형태의 광고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엔 미대동문들이 직접 제작한 미술작품과 아트상품이 입점됐다. 본회가 총동창회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때마다 서울대 동문들에게 제공했던 우수 미술작품 소장의 기회를 Mall SNUA를 통해 더 쉽고 부담 없는 가격에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본회는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미술대학 특지장학금이 나 동문 작가들의 창작지원금으로 쾌척할 예정이다.

관악경제인회 첫 조찬포럼



관악경제인회가 지난 7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부섭(56화학공학) 관악경제인회장, 이희범(67전자공학) 총동창회 명예회장, 조완규(48생물) 전 서울대 총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 권오현(71전기공학) 삼성전자 상근고문이 연단에 올랐다.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이날 포럼은 주영섭(74기계공학)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사회를 맡아 청중과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관악경제인회는 이날 참석한 동문 전원에게 권고문의 책 '초격차 리더의 질문'을 증정했다. 한편, 권고문은 1985년 스탠퍼드대 대학원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삼성반도체연구소 연구원으로 삼성에 입사, 1992년 세계 최초로 64Mb DRAM 개발에 성공, 2008년 반도체 사업부 총괄 사장을 거쳐 2012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DS(Device Solution) 사업부문장에 올랐다. 2017년 삼성전자 회장을 맡고, 서울대 이사장 및 서울대 수익사업을 관리하는 SNU홀딩스의 초대 의장을 겸임하는 등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상근고문과 서울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신임 관악언론인회장



박민(82정치) 문희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5월 23일 관악언론인회 제12대 회장에 취임했다. 20여 년 동안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관훈클럽 총무 등을 역임한 박회장은 오늘날 언론이 처한 위기와 서울대인으로서 짊어진 책무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취임 두 달 동안 간사단 대부분을 교체, 13명 중 7명을 1990년대 학번으로 선임했다. 박회장은 지난 7월 27일 총동창회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 속에서 소속 언론사의 입장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현실에서, 진영을 넘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언론 위기의 극복, 나아가 건전한 여론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큼니다."라며 관악언론인회가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말했다. 박회장은 관훈클럽 총무를 맡았던 경험을 살려 서울대 출신 언론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20일 열린 관악경제인 조찬포럼이 그 중 하나이다.

흠커밍데이

- 일 시 : 2023년 10월 15일 (일) 11:00~17:30
- 장 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 행사내용 :
 - 11:00~14:00, 캠퍼스일대 | 캠퍼스 자유 탐방 * 자세한 안내는 추후 게시 예정
 - 14:00~16:00, 버들골-풍산마당 | 동문 나눔한마당 참가 신청 및 행운권 접수(14:00~15:30, 풍산마당) 재학생 동아리 활동 참관, 미니게임 참여(14:00~16:00, 버들골) 재학생 동아리 공연 및 행운권 추첨(15:00~16:00, 풍산마당)
 - 16:00~17:30, 풍산마당 | 개회식 및 음악회
- 문 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대표전화 02-702-2233
- ※ 안전상 이유로 도시락 대신 간단한 간식과 생수를 제공 예정 (별도로 버들골에서 푸드트럭 운영 예정)
- ※ 총동창회의 모든 행사는 평생회비 또는 올해 회비를 납부한 서울대 동문에 한해 참석 가능
 - 회비 : 연회비 5만원 또는 평생회비 50만원(65세 이상은 30만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1-180304(예금주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9월 조찬포럼

- 일 시 :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플라자호텔 11층 그랜드볼룸(시청 앞)
- 강 연 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주 제 : 교육개혁,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 참가신청: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 1599-7704(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5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 입금 시 성함과 행사명을 함께 기재(예_홍길동9월조찬)

9월 국토문화기행

- 일 시 : 2023년 9월 21일(목) 오전 9시
- 답 사 지 : 충남 내포지역
- 집합장소 : 2·9호선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 안내 및 해설 : 이민부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 참가신청: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 1599-7704(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5만원(김밥·오찬 제공) 신한은행 140-013-055937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 입금 시 성함과 행사명을 함께 기재(예_홍길동9월국토)

10월 수요특강

- 일 시 : 10월 25일(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공덕역 8번 출구)
- 강 연 자 :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 주 제 : 생성형 AI의 현황과 주요 이슈
- 참가신청: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 1599-7704(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 2만원(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예_홍길동10월수요)

6 공지사항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8.1-31)-가나다순

- 부회장 회비** 권대훈(90조소) 서명덕(71응미)
- 이 사 회비** 곽순화(72응미) 김덕용(81회화) 김은정(81회화) 류지선(89서양) 박소영(73회화) 송인옥(82회화) 장준혁(90조소) 최미영(70응미) 추명희(70조소)
- 일 반 회비** 강민지(10동양) 구지회(90산디) 송인호(82응미) 신동수(73응미) 이자운(97산디) 이정림(73회화) 이지현(84동양) 전기순(82응미) 정은미(81회화) 황은성(명예)
- 평 생 회비** 황인혜(65회화)
- 광고후원금** 칸/김유숙(87서양) 50만원 허진(81회화) 20만원 한국화회 20만원 한울회 20만원 디팩/이한호 19만원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태성(49조소) 본인상
강태성 동문이 지난 8월 9일 별세했다. 1927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강동문은 1965년 '지평선' 작품을 시초로 바다와 바람, 파도 등 연속성과 율동성을 주제로 두고 작업을 해왔다. 1966년 '해울'로 제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후 서울시문화상, 김세종조각상 등을 수상했으며 이화여대 미대 교수를 역임했다.

이강화(81회화) 모친상 8월 28일 별세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

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휴대폰으로 소식지를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일 말일 발행되며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도 게재하므로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자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협찬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후원광고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링가플(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자체제작한 포장지(발포지)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호	가로	BOX 가격표(cm/원)						미술품 포장지(발포지) 가격표	
		세로		세로		세로		사이즈	가격
		F(인물)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1	22.5	15.8	5,000	14.0	4,500	12.0	4,000	60*80	5,5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100*80	6,6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00*130	8,8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150*125	13,2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140*170	14,3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50*190	16,5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Art Consulting

Art Project

Office Museum

KAN

19
년

years of expertise
전문성과 노하우

5,282
건

artwork inspections
경기도 전역의 미술품 전수조사

3,630
점

ongoing management
미술작품 기획·관리·대여 진행 중

후원광고

KAN 대표 김유숙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77길 20, 224 E kanarts2021@naver.com T 02 536 7195

kanarts.com

| officemuseum.com

| @kanarts_official



제47회 한울회전 개최



한울회(회장 이부연/71응미)는 오는 9월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제47회 한울회 정기전을 개최한다. 참가 인원은 95명이다. 이와 아울러 2023 세계동문초청한울회특별전을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부연 한울회장은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동문들을 지난 1년간 수소문하여 찾았다. 그 결과 네덜란드, 미국,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활동하고 있던 동문 26명이 흔쾌히 참여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이 한 울타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이번 한울회전은 세계동문초청전을 포함해 참여작가 총 121명으로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하는 행사가 될 예정이다. 한울회는 1980년 관훈미술관에서의 창립전을 시작으로 2022년 가나인사아트센터까지 46회에 이르는 전시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열어 왔다. '한울회란 명칭은 큰 울타리란 뜻으로, 이 안에서 작품발표를 함께하며 선후배 동문의 세대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

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오는 9월 22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인 세미나 및 장학금 전달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대학교 주관 '서울대학교 예술주간' 행사로 초청되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해마다 진행해 온 한울회 가을 스케치를 대체한 세미나 및 장학금 전달행사는 모교 74동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되며, 한울회 회원과 모교 학부 및 대학원생 그리고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다. 특강자로 초대된 동문은 권영걸(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신미경(비누조각가), 정종미(전 고려대학교 교수, 색채연구) 신현경(영산대학교 명예교수, 미술교육), 최진희(유리조형작가) 등 5명이며, 이중 신현경, 최진희 동문은 한울회 회원이다. 장학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학부생들에게 소정의 금액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회장은 "2023 세계동문초청한울회특별전을 개최하게 됨을 감사드린다. 본 전시를 통해 반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울회를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감사드린다. 더욱이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자랑스러운 동문을 초대하여 자리를 함께하게 됨이 영광스럽다. 한국과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성동문들은 최고의 지성인들이시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국과 세계의 미술과 미술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여성 인재들이시며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한울회전을 개최하는 소감을 밝히며 한울회원을 격려했고 2023 세계동문초청한울회특별전과 한울회세미나 등을 언급하며 한울회의 세계화와 미술이론에서의 기량 발휘에 대한 비전을 드러냈다.

한울회세미나 안내

한울회가 개최하는 세미나가 오는 9월 22일 모교 74동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모교와 서울대 학생처의 후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예술주간행사로 개최되는 한울회세미나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5분까지 박덕실(80서양) 한울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권영걸(69응미) 본회 회장이 '국가건축 및 디자인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최근 제2회 하인두예술상을 수상했

으며 비누조각으로 세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미경(86조소) 동문이 '현재까지의 작업 여정'을 주제로 발표한 다음, 색채연구로 유명한 전 고려대 교수 정종미(76회화) 동문의 '한국화의 재료와 기법'에 관한 발표가 진행된다. 회원발표자로 선정된 신현경(74회화) 동문은 '한국의 여성 생태미술'을 발표한다. 신동문은 영산대 명예교수이며 실기와 미술교육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보여주고 있다. 유리조형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최진희(83회화) 동문은 '빛을 발하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본 행사는 한울회 장학금전달식을 진행한 뒤 마무리될 예정이다.



권영걸



신미경



정종미



신현경



최진희

한울회

후원광고

HANWOOL

ARTISTS

ASSOCIATION

한 울 회

2023년 신입회원 모집

입회 문의

sil0144@hanmail.net

010-6346-0144(사무국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성동문회

http://snuhaa.com/home/

동문작업실 탐방

박항률(70회화) 동문의 작업실을 찾아서

무더위가 꺾이기 시작한 지난 8월 22일 오후, 본지 편집팀은 명상을 주제로 회화작업을 해온 박동문의 평창동 작업실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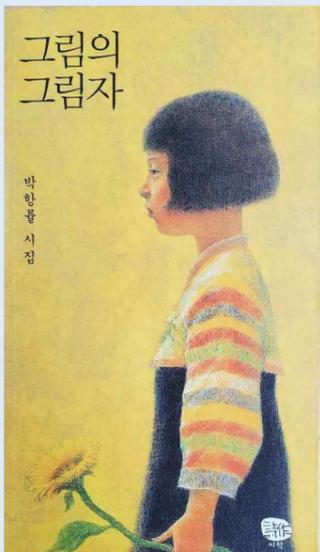
그림을 전공하게 된 배경은?



부친은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 반대했다. 중학교 때 미술교사였던 김호걸(53회화) 선생께서 미술반에 들어오길 독려했으나 부친의 반대로 못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만화를 많이 그렸다. 서울대상대 학장을 역임하셨던 부친이 공부를 시키려 시골 고등학교로 보냈으나 오히려 감시를 벗어난 틈을 타서 미술반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때의 전원생활에서 얻어진 감성이 밑거름이 되어 현재의 향토적이고 자연스러운 한국적 작품들이 탄생하게 됐다. 화가가 되는 것을 반대했던 부친이 시골 고등학교로 보낸 덕에 지금의 서정적 작품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일 년여의 시골생활 후 귀경하니 고집을 못 꺾으신 부친께서 예고입학을 허락하셨다. 고교시절 디자인을 전공하려 하였으나, 예고 동기인 금누리 작가가 서양화 대작을 그리는 것이 멋있어 보여 회화과로 진로를 정했다. 이런 우연한 만남이 전과에 큰 계기가 되었다니 인생은 참 재미있기도 하다.



그동안 작업했던 작품의 변화과정은?



대학시절 현대미술에 매료되어 오브제 위주의 작품을 했었다. 졸업 후 하동철, 이강소 동문이 주축이 된 신체제전에 합류한 후 서울70, 오늘의 작가전 등의 회원으로 작가활동을 계속해 왔다. 80년대에는 주로 기하학적 추상화를 그렸다. 구상 그림은 우연히 쓰게 된 시가 계기가 되었다. 선일여중 교사시절 교지에 시를 쓰게 됐는데, 이때 교지를 편집했던 제자가 졸업 후 출판사를 설립해서 시집 낼 것을 권유해 '비공간의 삶'이라는 시집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시집을 위해 펜화로 구상화를 시작했고 인데코화랑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펜화에 더해 유화 그림 10점을 함께 전시했던 것이 구상

화로 바뀐 시점이었다. 이때 참석했던 금호미술관 박영택 학예사가 2년 후 초대전을 요청했다. 그 이후 '그리울 때 너를 그린다', '오후의 명상', '그림의 그림자', '별들의 놀이터' 등 다섯 권의 시집을 냈다.

본인 전시중 특히 기억에 남는 전시는?

구상화로 가장 크게 전시했던 1992년 금호미술관에서의 개인전과 1993년에 구상 조각 작품만으로 한 개인전이다. 조각은 대학시절 최의순(53조소), 엄태정(58조소) 교수로부터 해부학을 배우면서 조각기법도 배운 것이 큰 토대가 되었다.



오랫동안 함께 했던 부인에 대한 추억은?



동문작가인 아내(김태연/72회화)는 늘 본인을 격려하고 북돋아 주었다. 동료이자 남편으로 존경해준 점이 늘 고마웠다. 마지막 시집은 아내가 원해서 출간한 것이며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표지로 실었다.

작가생활 중 힘들었던 시기는?

구상작업을 시작한 이후 늘 신나게 작업을 해왔는데 2013년 눈 수술 이후 건강문제로 슬럼프가 왔었다. 또한 아내까지 병고를 치루기 시작해 최근 십 년간이 화가로서 어려운 시기였다.

교육자로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매일 일기 쓰듯이 꾸준하고 성실히 작품에 임해야 발전이 있다.

장남이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부모로서의 생각은?

장남(박세준/04디자인)이 모교를 졸업하며 하동철미술상을 받아 매우 기뻐했다. 디자인과 서양화를 복수전공한 뒤 하고 싶은 작품활동을 계속 해오는 모습이 대견할 뿐이다. 장녀(박소연/박사09동양)도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코스를 수료했으니 모두 동문이 된 셈이다.



인터뷰를 마친 본지 편집팀은 마침 아트스페이스 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박세준 동문의 개인전 '긋은 날의 예보-A bad day with a Forecast'를 관람했다. 전시는 지난 8월 17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인터뷰를 마친 본지 편집팀은 마침 아트스페이스 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박세준 동문의 개인전 '긋은 날의 예보-A bad day with a Forecast'를 관람했다. 전시는 지난 8월 17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박항률 동문은 모교를 졸업한 후 홍익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개인전 29회(서울, 부산, 진주, 후쿠오카, 뉴욕, 볼티모어, 캐나다, 런던), 단체전 300여 회(제19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제8회 인도 트리엔날레, 가나아트25주년전, 동행-가나아트30주년전 등)에 참가하였다. 또한 세종대 회화과 교수, 외교부 문화외교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선정 백진경(78응미)

백진경 동문이 오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부산을 중심으로 전국 규모로 열리는 '2023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의 조직위원장으로 선정되었다. 지난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올해 행사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F1963'을 주제 행사장으로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거점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백동문은 "행사 기간인 오는 10월 24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장벽이 없는 삶, 모두를 위한 범용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공공디자인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라면서 "공공디자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열린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백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 시각디자인전공 학사와 미국 미시간대학교 그래픽디자인 석사, 세종대학교 디자인 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8년 서울백병원에 디자인실을 만들어 20년 이상 운영해 왔으며, 1999년부터 인제대에서 멀티미디어학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디자인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 임명 장동광(84공예)

장동광 동문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K컬처의 뿌리인 공예, 디자인, 전통문화, 한복의 진흥과 세계화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장 신임 원장은 30년 이상 문화예술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하는 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문은 모교 공예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미술이론전공 석사 학위를 받고 홍



익대 대학원에서 미술비평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일민미술관 학예연구팀장, 청주공예비엔날레 전시예술 총감독, 유리지공예관 학예연구실장, 안양문화예술재단 공공예술부장, 한국도자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장동문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으로서 지난 8월, 올해 6회를 맞은 한복박람회 '2023한복상점'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개최하고 오는 9월 22일 개막 예정인 '2023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조직위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국립익산박물관 관장 임명 김울림(86서양)

김울림 동문이 지난 7월 31일 국립익산박물관의 제3대 관장으로 임명됐다.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 석, 박사 과정을 마쳤다. 목원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효성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했고 1998년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사를 시작으로 유물관리부·전시과·미술부 학예연구관을 거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박물관과 연을 쌓았다. 그는 다수의 유물 관련 논문을 작성하고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전 국립춘천박물관장을 지냈다. 지난



8월 개최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신임관장으로서 김동문의 행보를 엿볼 수 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지난 8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백제 역사·문화를 체험행사에 참여한 것이다. 김동문은 16개국 695명의 청소년들에게 전시 관람과 체험을 통해 익산과 미륵사지를 즐겁게 알아갈 수 있는 영외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문은 최근에 서양화과 86학번 동기전 '86-23'에도 참여했다.

이탈리아 파루소 와인 라벨 디자인 이혜민(88조소)

이혜민 동문이 지난 7월 자신의 작품으로 이탈리아 파루소(Parusso) 와인의 라벨을 장식했다. 세계 최고급 와인 생산지역인 이탈리아 바롤로(Barolo)의 대표적인 와인 메이커 파루소가 2019 빈티지 레드 와인과 2021 빈티지 화이트 와인의 라벨로 한국의 이동문의 작품을 선택한 것이다. 파루소가 레드 와인 라벨로 채택한 작품은 이동문의 회화 작품인 리플렉션(Reflections)이다. 파루소 측은 "포도밭에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정수를 와인 한 병에 담아낸다는 자신들이 철학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화이트



와인 라벨에 쓰인 시드(Seeds)에 대해선 "단단한 껍질 속의 감춰진 생명력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 씨앗이 담고 있는 잠재력을 단아하게 표현한 게 매력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혜민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뉴욕대 대학원에서 설치 미술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홍콩·마이애미등 유명 해외 아트 페어에 참가하고 2016년 영은미술관 영은창작 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했으며,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 활발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에세이 '예술이 필요한 시간' 출간 이세영(10디자인박사)

이세영 동문이 지난 5월 15일에 에세이집 '예술이 필요한 시간'을 출간했다. 책은 그가 경험한 수많은 전시 공간 중 21개 기관을 선별하여 소개한다. 이동문은 본 에세이집에서 미술관에서 일을 시작한 이유, 그리고 전시 만드는 일을 계속하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한다. 한편, 이동문은 홍익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한 후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에서 실내건축학 석사를, 모교에서 디자인학 박사를 취득했다. 2011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큐레이팅 인턴으로



재직하며 미술계에 입문했고, 광주비엔날레 국제 큐레이터 코스를 거쳐 대림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2015년 전시디자인 스튜디오 '논스탠다드(nonstandard)'를 설립했고, 삼성문화재단, 리움미술관 등 주요 미술관 및 미술기관과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2017년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소장품전 '하이라이트'와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 '빛' 등 국내 주요 대형 전시디자인을 총괄했다.

국민대총장배 아마추어 농구대회 우승 김예은(16조소)

김예은 동문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39회 국민대학교총장배 전국대학 아마추어 농구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맹활약을 펼친 SUN의 가드 김동문은 여자부 MVP에 선정됐다. 39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본대회는 순수 아마추어 대학선수들이 정상을 향해 다투는 국내 최대 규모 대회다. 김예은은 "경기를 치르면서 이길 것 같긴 했다. 그래도 변수가 워낙 많아서 불안했다. 결승전 막판에 잡힐 뻐 해서 불안했는



데, 다들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동문은 2016년부터 국민대 총장배에 계속 참가했는데 올해가 그의 마지막 국민대총장배 참가라며,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정말 뜻깊다고 전했다. 한편, 김동문은 현재 모교 조소과에 재학 중이며 올해를 끝으로 자신의 자리를 후배들에게 물려줄 계획이다.

인생·예술·사랑 김중영(1915-1982)

한국 근대조각의 선구적 작가이자 교육자인 김중영 전 모교 교수의 전시 '인생·예술·사랑'이 지난 4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김중영미술관에서 열렸다. 생전에 수많은 예술적 영감을 글로 남긴 김중영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남긴 어록을 함께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예술가로서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에 관한 글부터, 한국미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까지 김중영의 글은 작품만큼이나 관람자에게 잔잔한 마음의 울림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에는 김중영의 작품과 함께, 그의 어록을 함께 소개한다.



전시의 제목인 '인생·예술·사랑'의 관계는 김중영의 작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었다. 이번 '인생·예술·사랑' 전시를 통해 묵직하면서도 깊이 있는 추상예술을 관람해볼 수 있다. 한편, 김중영은 1941년 동경미술학교 졸업 후 모교 교수로 재직하였고 1978년에는 예술원상을 수상했다. 동양과 서양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서양미술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세계 속의 한국미술을 성취하였으며, 1982년 68세의 나이로 작고하였다.

서울, 뉴욕, 파리 그리고 회귀 김창열(48회화/1929-2021)

김창열 동문의 소장품 기획전 '서울, 뉴욕, 파리 그리고 회귀'가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에서 열린다. 평안남도 맹산 출신인 김중영은 1948년 모교에 입학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학업을 중단했다. 이후 뉴욕에서 판화를 전공하고 1969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정착했다. 1972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살롱 드 메'(salon de mai)에서 처음 '물방울'이 등장한 작품을 선보인 이래 50년 가까이 물방울을 소재로 작업하다 지난 2021년 별세했다. 1965년 서울을 떠난 이후 30년 가까이 뉴욕, 파리를



오가며 작품활동을 이어간 김중영은 두 도시에서 겪었던 복합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물방울 작업을 탄생시켰다. '서울, 뉴욕, 파리 그리고 회귀'에서는 김중영이 한국 앵포르멜 운동을 주도했던 서울을 시작으로 뉴욕과 파리에서의 행적과 작품의 전반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본다.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은 "시대별로 나열된 작품의 감상과 함께 서울, 뉴욕, 파리 등 공간의 이동에 따른 김창열 화백의 내면을 읽어보면서 깊이 있게 전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원(始原)을 향하여 윤명로(56회화) 이우환(56회화) 심문섭(61조소) 외

윤명로, 이우환, 심문섭, 박석원 등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원로작가 4인전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평창동 가나아트에서 열렸다. 4인의 작가는 20세기 중후반 한국 현대미술사의 격동기를 주도해 왔다. 이번 전시는 20세기 중후반 한국 현대미술사의 격동기를 주도한 작가들이 다양한 매체 및 형식 실험을 축적해 완성한 작업 세계를 선보이는 자리로 회화와 조각, 설치 작업 등을 망라한다. 참여 작가 4인은 표현 재료인 자연물의 고유한 물성과 원초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으로 자연회귀적 태도를 보이거나, 자연



을 매개로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이 담긴 작업을 전개하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만물의 근원, 즉 시원을 탐구해왔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 가나아트는 "이번 전시는 자연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각 작가의 대표작을 실견할 기회일 뿐 아니라 1970년대 작품에서 근작으로 이어지는 당대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자리"라고 전했다.

My Garden 최명애(70회화)

최명애 동문의 개인전 'My Garden 나의 정원'이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5일까지 갤러리조은에서 열렸다. 최명애의 정원에는 그림의 소재가 되며 작업에 에너지와 위로를 주는 뮤즈들이 가득하다. 작가가 그린 정원은 보는 이들에게 자연의 에너지와 위로를 선사하는 동시에 인류의 무지와 탐욕 때문에 자연이 주는 에너지와 위로를 잃을 수 있음을 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명애의 정원은 단순한 장식이나 휴식의 공간을 넘어 '때로는 상징적이고, 때로는 명상



적이며 또 가끔은 반성적인' 무한의 공간으로 감상자들을 인도하는 힘을 가진다. 본 전시에는 대형 유화 작업부터 드로잉 소품까지 다채로운 25점의 신작이 전시되었다. 한편, 최명애는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미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하와이대학 미술대학원에서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2022년부터 갤러리조은, K1af +, 아트부산 등 국내 주요 페어에 연이어 소개되며 국내 미술시장에 자리매김했다.

후원광고

2023
제57회 한국화회전

1967년 제1회 한국화회 개최 <신문회관 화랑> 그리고 그 이후

1967년 21명 동문에 의해 창립된 한국화회는 한국화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세기를 넘어 57회 전시를 맞이하는 한국화회는 한국화의 지평을 넓히며 전통과 현대의 형식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화회의 전신인 묵림회(1960년 창립)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전위적 청년작가들이 기존화단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양식을 모색한 단체였다. 그 정신은 한국화회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3.9.22(금) - 9.27(수)

오프닝 : 9.22(금) 오후5시

한벽원미술관 (서울 종로구 삼청동 83)

전시문의 : 02-723-3777

순환-낮은 곳으로 김대영(79회화)

김대영 동문의 개인전 '순환-낮은 곳으로'가 지난 8월 4일부터 26일까지 정선 그림바위예술발전소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얽히고설켜 시작점을 찾을 수 없는 넝쿨과 개나리 등을 그려낸 연작 '순환' 시리즈로 꾸며졌다. 김동문은 자연을 소재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화려하지 않은 색감을 통해 따뜻한 정서를 작품에 담으며 낮은 곳에서 자연을 보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모든 것은 자연에서 시작됐다. 얽힌 실타래 같은 줄기의 시작



을 이제는 쉽사리 찾을 수 없지만, 그 줄기를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김동문은 이러한 관점을 작품에 담아 자연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을 전하고자 한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후 강원미술대전 심사위원, 평창비엔날레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그 존재의 가벼움으로' 등이 있으며 현재 춘천조각심포지움 부조직위원장, 사회적협동조합 예술공감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My Generation 권여현(81회화)

권여현 동문의 개인전 'My Generation'이 지난 8월 2일부터 29일까지 용산구 G컨템포러리에서 열렸다. 권동문은 꿈과 현실 사이에 놓인 일탈자들을 그린다. 좌절된 욕망, 미끄러진 욕망은 히피족,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 등에서 집단적으로 해소되어 왔으나 오늘날 욕망의 찌꺼기들은 짝이나 밭 같은 엉뚱한 행동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그림에 담아내는 과정에서 권동문이 중요하게 여기는 회화적 화두는 붓질의 빠름과 얇은 막을 형성하는 스



트로크, 그리고 맑은 색채이다. 작품에서 색채는 특정 인물, 인종, 상황을 가리키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것들과 무관한 조형장치일 뿐으로 의미와 형태와 색채가 구별되지 않는 무간지경,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꿈과 현실의 세계를 나타낸다. 한편, 권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공부했다. 하중현미술상(2005), 석남미술상(1991) 등을 수상했으며 50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현재 홍익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각가의 드로잉 김은현(82조소)

김은현 동문의 아홉 번째 개인전 '조각가의 드로잉'이 지난 7월 17일부터 30일까지 안국동 갤러리담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김동문이 프랑스 파리 그랑 쇼미에르아카데미 크로키반에서 작업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다. 김동문의 드로잉과 조각 작품 20여 점이 한 자리에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기존의 전시에는 단아하면서도 고아한 '명상'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들을 많이 선보인 데 비해, 이번 전시에는 인간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집착'이나 '두려움'을 표현한 작품들이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인체 드로잉, 크로키는 조각 작업의 바



탕이 되는 과정이다. 조각가의 손으로 표현한 굵직하면서도 날렵한 선, 묵직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터치들은 지금은 잠시 평면의 화폭에 갇혀 있지만 언젠가는 평면 밖으로 튀어나와 다시 입체의 형태로 되살아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성대 미디어컨텐츠학부 등에서 강의했다. 명상을 주제로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수십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왈츠 포 사일런스 허진(81회화)

허진 동문의 초대전 <왈츠 포 사일런스 Waltz for Silence>가 서울 신촌에 위치한 아트레온 갤러리에서 오는 9월 2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열린다. 허동문은 수년 전부터 '유목동물+인간-문명' 시리즈를 작업해 왔다. 동물, 사람, 인공물의 이미지를 화면에 중첩 배치해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성찰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작업이다. '이종융합동물+유토피아' 시리즈는 접합과 분리라는 상반된 욕망을 동시에 지닌 인간이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묻는다. 이러한 작가적 관심 아래 신작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 <왈츠 포 사일런스>



는 그동안 허동문의 작업에 따라붙었던 '생태' 위주의 비평적 수식어를 덜어내고, 그림 속 자아의 존재와 몸을 철저히 중심에 두고 바라본다. 한편, 허동문은 모교 회화과 학·석사를 졸업하고 600여 개 그룹 기획·초대전에 참여했으며 33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제1회 한국일보 청년작가 초대전 우수상, 2001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화관광부), 제19회 허백련미술상 본상, 용봉학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허진 Hurjin 개인전

왈츠 포 사일런스
Waltz for Silence

초대 일시 : 9월 21일 (목) 오후 5시
9월 21일 (목) ~ 10월 14일 (토)
오전 11시 - 오후 6시 (일요일, 추석 연휴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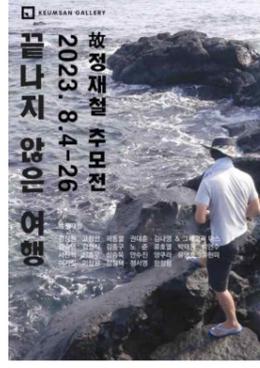
아트레온 갤러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29 B1, B2

후원광고

13 회원동정-전시

끝나지 않은 여행 정재철(83조소/195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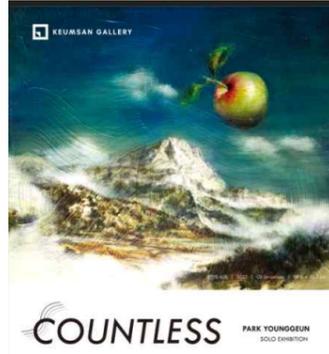
정재철 동문의 3주기 추모전 '끝나지 않은 여행'이 지난 8월 4일부터 26일까지 회현동 금산갤러리에서 열렸다. 정동문은 1959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모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나무라는 재료의 가능성을 탐구한 정동문은 1988년 중앙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하며 조각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중앙미술대전 부상으로 주어진 유럽 여행을 계기로 그는 다양한 세계의 문화와 미술을 접했고, 또 다른 작품 세계로의 변화를 꿈꿨다. 이후 작업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한 지점에 안주하



기보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작가 특유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이어진 '블루오션 프로젝트'는 '실크로드' 수행하고자 하는 작가의 책무가 돋보이는 작업이다. 이번 전시에는 정동문의 작품뿐만 아니라 박태동(81조소), 안수진(83조소), 유현미(83조소), 이기철(83조소), 정서영(83조소), 김종구(84조소), 유영호(84조소), 노준(89조소), 권대훈(90조소), 이창원(91조소), 한정림(92조소), 백연수(94조소) 동문 12인 포함, 25인의 선후배 및 제자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었다.

Countless 박영근(84서양)

박영근 동문의 개인전 'Countless'가 지난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금산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사과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최신작을 포함해 총 19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박동문에게 사과는 역사적 인물부터 실존적으로 나약한 인간의 모습까지 담아내는 그릇이며 사람과 사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박동문은 사물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그 사물이 환기하는 감각이나 분위기, 나아가 그 본질적 개념을 포착했다. 물감이 마르기 전 전통 공구인 드릴이나 페퍼로 표



면을 갈아 나가는 박동문만의 독특한 작업 방식에는 현실의 재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그의 인식이 담겨있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28여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사포로 국제판화 비엔날레 후원자상 등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문화관광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서양

미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86서양 동문전 86서양 동문 22명

86학번 서양화과 동문22명(김봉중, 이계원, 이강우, 안성규, 이승훈, 김울림, 배준성, 서동수, 강재남, 송영화, 이상은, 정윤희, 한수정, 김향남, 구정미, 최성원, 이균순, 이지민, 이지은, 허구영, 고진한, 임채일)이 지난 8월 1일에서 27일까지 갤러리 더 플렉스(관장 이승훈 동문)에서 동문전을 열었다. 그저 같은 해, 같은 학과에서 대학 생활을 함께했다는 공통점만으로 엮어진 동문전이었지만 인생의 37년이라는 시간의 힘 때문인지 22인의 예술혼이 다양하게 배어나왔다. 80년대, 90년대, 밀레니엄의 시작과 21세기의 첫 20년의 세월이 각자의



가슴 한켠 미술과의 밀애를 즐기며 작품을 제작한 것이다. 따로 또 같이 겪어왔던 37년의 역사는 화면 속에서 다양한 변주곡으로 표현되었다.

뒤편으로 감당해 온 삶 속에, 작품 속에 녹아있었다. 몇몇은 전업 작가로, 몇몇은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로, 몇몇은 전시를 기획하고 화랑을 경영하며 미술 안에서 살아왔다. 몇몇은 생업과 가정사의 바쁜 와중에도

사는 일 손용수(90서양)

손용수 동문의 개인전 '사는 일'이 지난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마북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비움의 깨달음에서 채움의 열망으로 가는 손동문의 회화 여정을 담았다. 그는 '공성(空性)' 연작에서 마음의 혼란에서 오는 환상과 허상에서 벗어난 상태, 그리하여 존재의 진정한 실체를 마주한 비워냄의 상태인 공성(空性)에 정진했다. 그러나 그의 회화는 2023년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향하여> 연작을 통해 부재에서 존재로, 비움의 명상에서 채움



으로 선회한다. 작품의 이야기가 변함에 따라 작품의 형식도 추상미술에서 재현미술로 변화했다. 작품활동의 새로운 국면에서 손동문은 '사는 일'을 고민하고 침묵(枕木)을 매개체로 삶에 관한 그의 의지를 표명한다. 한편, 손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상해에서 활동했다. 불가(佛家)의 사상에 심취해 '호법산'을 주제로 작업을 하였고 불교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2019년 4월에 국내 데뷔전시를 열었다.

승을 고민한다. 그는 작품의 주제에 있어서 전통회화에서 일관되게 담아내고 있는 자연에 대한 순응과 자연과 인간의 합일의 정신을 온전하게 따르고 있으며 오랜 전통 속에서 선배들이 지켜온 먹의 표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조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3년 대한민국예술원 젊은예술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오는 9월에 수상할 예정이며, 현재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흩어진 마음 조인호(96동양)

조인호 동문의 개인전 '흩어진 마음'이 지난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한벽원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무의 상흔과 돌의 침식된 표면을 수많은 붓질로 표현한 수묵화 작품들을 선보인다. 삶은 사건들로 이루어진다. 원인이거나 이유를 알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사건을 겪을 때, 온전한 마음은 흩어진다. 조동문은 이때의 요동치는 변화를 붓질에 담는다. 한국화의 전통을 지키며 작업하는 작가가 과거보다 드문 요즈음 조동문은 전통을 지키되 맹목적인 답습의 형태가 아니라 현대적인 변용이 가미된 새로운 형태로 수묵화 전통의 계



승을 고민한다. 그는 작품의 주제에 있어서 전통회화에서 일관되게 담아내고 있는 자연에 대한 순응과 자연과 인간의 합일의 정신을 온전하게 따르고 있으며 오랜 전통 속에서 선배들이 지켜온 먹의 표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조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3년 대한민국예술원 젊은예술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오는 9월에 수상할 예정이며, 현재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승을 고민한다. 그는 작품의 주제에 있어서 전통회화에서 일관되게 담아내고 있는 자연에 대한 순응과 자연과 인간의 합일의 정신을 온전하게 따르고 있으며 오랜 전통 속에서 선배들이 지켜온 먹의 표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조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3년 대한민국예술원 젊은예술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오는 9월에 수상할 예정이며, 현재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Flash 신건우(97조소)

신건우 동문의 개인전 'Flash'가 서울 한남동 필립스옥션 코리아에서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열렸다. 신동문은 평면 작업 위에 투명한 레진을 겹겹이 덧대고, 추가하고 싶은 물감을 번갈아 가며 궁극적으로 깊이 감을 만들어 낸다. 중심인물과 배경 사이에서 신동문의 그림은 강렬한 색채와 사실적인 묘사를 동시에 사용해 추상과 형상 사이에 압축돼 있던 서사의 다층적 구조를 공간 속에 파편화된 형태로 자유롭게 늘어놓는다. 자신의 경험과 기억의



이미지로부터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유희하면서 이를 평면, 입체, 부조를 넘나드는 작업으로 구현한다. 이번 전시에서 신동문은 초현실적인 상황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현실을 기반으로 다양한 매체로 풀어내는 작업을 선보인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조소과 학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슬레이트에서 유학했다. 2009년 랜드 세큐리티스 어워드 수상, 2013년 갤러리퍼플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이미지로부터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유희하면서 이를 평면, 입체, 부조를 넘나드는 작업으로 구현한다. 이번 전시에서 신동문은 초현실적인 상황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현실을 기반으로 다양한 매체로 풀어내는 작업을 선보인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조소과 학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슬레이트에서 유학했다. 2009년 랜드 세큐리티스 어워드 수상, 2013년 갤러리퍼플 레지던시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14 회원동정-전시

창조적 일상 권민경(01서양)

권민경 동문의 개인전 '창조적 일상'이 지난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갤러리제이와이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일상'인데, 삶의 모순된 측면을 풍자한다거나 이미지로 상징적인 은유를 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관객의 사유를 유도한다. 권동문은 포토 콜라주 작업을 통해 SNS에 떠도는 이미지들로 표현되는 세속적인 혹은 추상적인 가치들에 대하여 화두를 제시한다. 영화, 애니메이션 등 동시대 대중문화의 시각 코드를 활용하여 친근하게 접근하지만, 어딘지 낯설고 불편한 요소를 집어넣어 관객으로 하여금



화면 속 세계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의도이다. 권동문의 사진이 '그림의 영혼을 가진 사진'이라는 혼합미디어 작품으로서 관객들에게 기분 좋은 혼란스러움과 사색의 기회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권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2011년 매체를 회화에서 사진으로 바꾸어 갤러리 아트공간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10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산, 속 이은경(02서양)

이은경 동문의 전시 '산, 속'이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갤러리میم에서 열렸다. 전시장 전체에 빼곡히 찬 크고 작은 산들은 길고 거대한 하나의 산맥이 되어 굽이굽이 둘러싸 공간 안으로 발 디딘 관람자를 산의 내부로 초대한다. 공간을 가득 메운 산들이 주는 시각적 어지러움과 사운드 작업의 청각적 왜곡, 설치된 산 그림들이 새로 그려낸 산등성이와 산기슭을 따라 걷는 경험을 통해 전시를 보는 사람들도 작가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산 앞에 서게 된다. 이은경은 "작업 자체는 늘 퍼즐 같다", "대부분의 시간은 그 퍼즐 조각



이 무엇인지 모른 채 헤매면서 작업한다. 산이 흥미로운 것은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은경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 서양화과 판화전공을 졸업하고, B.V 요한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아카데미 미술학교를 졸업했으며 다수의 개인전을 하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0 정림리 창작스튜디오 등 레지던시에서 활동했고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한국 소비자원 등에 작품이 소장되었으며 현재 세운아트스페이스 공동대표이다.

Sculpture 이민선(04조소)

이민선 동문의 개인전 'Sculpture'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씨알콜렉티브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이동문은 도전적으로 '조각'이란 전시명을 사용해, 조각의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조각과의 양가적 개념을 재사유하고, 조각이란 실재를 마주하는 정면 승부를 시작한다. 오브제 조각과 영상, 소설로 구성된 신작 13점은 바퀴 달린 나무판 좌대 위에 설치됐다. 가변적이고 가벼운 소재를 매개한 너무나도 일상적인 외양의 오브제 작업은 조각적인 것



뿐만 아닌 비조각적인 것에 대한 기대 모두를 배반한다. 이를 통해 조각 예술 개념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물질성과 사물의 신화화와 함께 이를 가능하게 하는 예술·예술가에 부과된 환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영국왕립예술대학원에서 조소 전공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모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22 인천아트플랫폼, 2020 국립 고양레지던시 등에서 활동했다.

Half Sticky 오가영(10조소)

오가영 동문의 개인전 'Half Sticky'가 지난 7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렸다. 본 전시는 기업은행이 개최한 'IBK&GMOA YOUNG ARTISTS 2023'의 첫 번째 전시다. 오동문은 도시 곳곳을 다니며 자연물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다. 수집한 디지털 이미지를 프린트한 사진을 찢거나 오려내고 구멍을 내거나, 사진 위에 그림을 그리며, 스폰지, 비닐 등의 이질적 재료와 접합시키는 등 일반적인 사진의 속성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실험을 지속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오동문은 'Half Sticky'라는 전시 제목처럼, 사진의 물



질적 속성을 확장시켜 스폰지 등의 이질적 재료와 작품을 지탱시키는 지지체로서의 가벽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시킨다. 오동문은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 매체를 통해 역설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를 탐구하며 사진을 유연한 중간적 존재로 확장한다. 이를 통해 키치적이거나 초현실적인 촉각적 디지털 사진 콜라주 설치로 다양한 가능성을 드러낸다. 한편, 오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Columbia University에서 Photography 석사를 마치고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했다.

[다이얼로그 01] 정지현 x MaMP 강민수(14조소) 외

강민수, 박상민(15조소), 박수연(석사18조소) 동문의 팀 Meatball and Meshed Potatoes(이하 MaMP)가 사진작가 정지현과 협업한 전시 'Birth; Reverse'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 제1 파워플랜트에서 열렸다. 본 전시는 문화예술원 2023년 기획전시 시리즈 '다이얼로그'의 첫 번째 전시로 각기 다른 영역의 두 아티스트 그룹이 만나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질문을 발견하는 과정을 목표로 한다. 원래 서울대학교 내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던 시설이었으나 개별난방으로 전환



되며 한동안 방치된 파워플랜트는 전시와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일부가 실현되지 못하고 '버려진 관념적 공간'이 되었다. 이번 전시에서 MaMP와 정지현 작가는 실현되지 못하고 사라진 파워플랜트의 관념적 공간을 소환해 가상과 실재, 실재와 가상을 넘나들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이해하고 해석한다. 한편, 박상민 동문과 강민수 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박수연 동문은 모교 조소과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물, 길 황규민(석사19동양) 외

황규민 동문과 박소현 작가의 2인전 '물, 길 Traces of Water'이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11일까지 서초동 한원미술관에서 열렸다. 본 전시는 한국화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역량 있는 차세대 한국화 작가를 발굴·지원이라는 취지에서 (재)한원미술관이 마련한 연례 기획전시 '화가(畫歌:그리기의 즐거움)'전 중 하나로 기획되었다. '물, 길'은 '물이 흐른 길' 또는 '물성의 흔적'을 의미한다. 황동문은 먹과 물감을 통해 종이의 물길



에 놓인 자연스러운 표면적 변화를 감지하고 옛 화보(畫譜)의 구성을 차용·각색하여 동양화의 동시대적 가치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번 전시를 통해 황동문은 '도구로서의 물'이 어떻게 현대적 미감을 아우르며 절묘하게 구현되는지를 선보였다. 한편, 황동문은 홍익대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모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Penetrating, Stone(2020, KSD갤러리), '황씨화보'(2022, OCI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9월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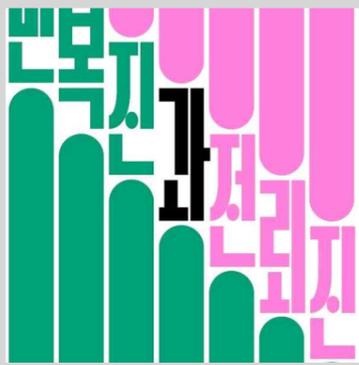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병상(57조소)
5.23-9.10
포항시립미술관



화필인생

박노수(46회화, 1927-2013)
5.26-2024.3.31
박노수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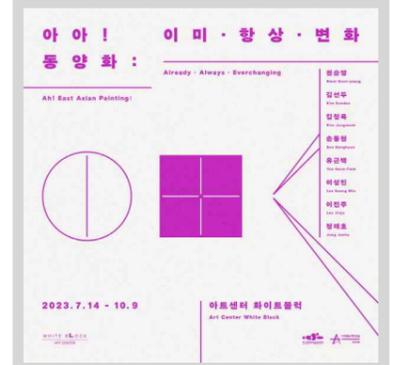
민복진과 전뢰진

전뢰진(49응미) 외 1인
6.20-2024.1.21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행운을 새기다

오영재(83서양)
7.3-9.4
서울대학교 대한외래갤러리



아아! 이미·항상·변화

손동현(98동양), 정재호(90동양)
7.14-10.9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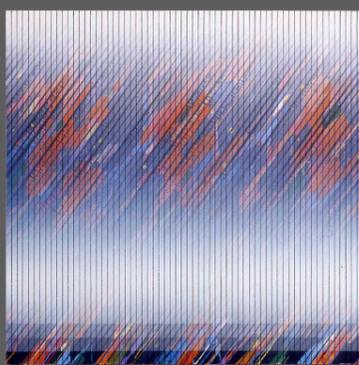
내 이름은 빨강

서용선(75회화)
7.15-10.22
아트선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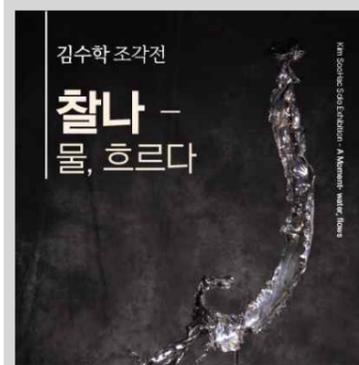
내면의 풍경

임현정(06서양) 외 1인
7.21-9.8
워싱턴 한국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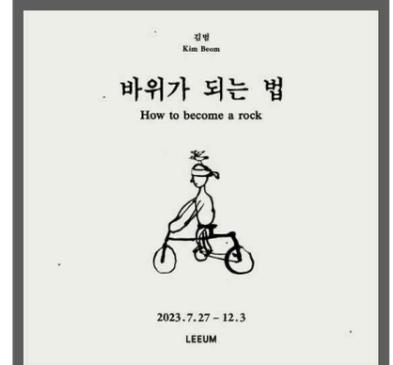
양평을 빛낸 원로작가

하동철(61회화) 외 1인
7.21-9.10
양평군립미술관



찰나 - 물, 흐르다

김수학(77조소)
7.21-9.10
김해 웰컴레지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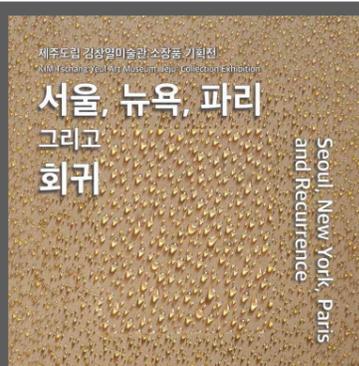
바위가 되는 법

김범(82회화)
7.27-12.3
리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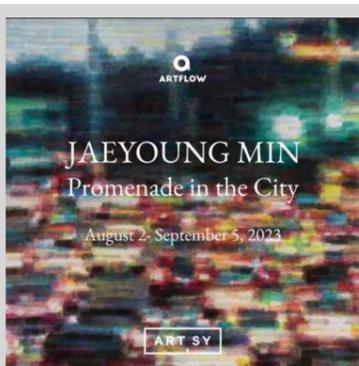
75분의 1초

장현호(석시22동양)
8.1-10.3
보름산미술관



서울, 뉴욕, 파리 그리고 회귀

김창열(48회화)
8.1-12.3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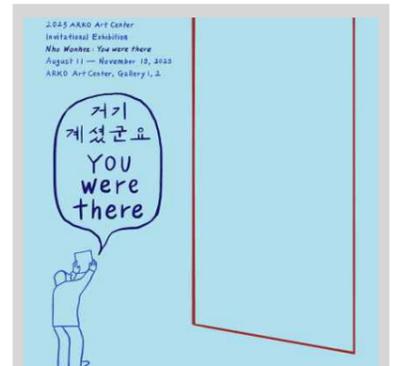
Promenade in the City

민재영(86동양)
8.2-9.5
아트시 온라인



새벽-진부령

송근영(86동양)
8.10-9.17
진부령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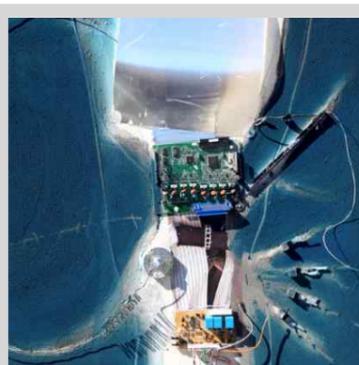
노원희: 거기 계셨군요

노원희(66회화)
8.11-11.19
아르코미술관



온전한 탈출

백승현(96동양)
8.12-9.9
갤러리프로젝트케이



"Light" and "Quest"

김봉중(84서양)
8.25-9.5
One Art Space



점쟁이

박재만(83동양)
8.30-9.5
갤러리아리수



그림의 떡

김형민(89동양)
9.6-9.19
지아트갤러리



Waltz for Silence

허진(81회화)
9.21-10.14
아트레온갤러리